신유빈,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53년 만에 최고 성적 거둬

‘세계랭킹 80위’ 신유빈, ‘21위’ 일본 하야타와 여자 단식 결승에서 1-3 패배…은메달 수확

혼합복식·남자복식 조 결승서 일본에 모두 敗

‘한국 여자 탁구의 미래’로 불리는 신유빈(대한항공)의 첫 아시아 정상 정복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신유빈은 4일 밤(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1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하야타 히나(일본)에 세트스코어 1-3(11-7 4-11 8-11 4-11)으로 졌다.

준결승에서 껄끄러운 상대인 안도 미나미(일본)를 넘어선 신유빈은 생애 첫 메이저대회 우승 도전에 나섰지만 아쉽게 하야타 히나에 가로 막혔다.

신유빈의 은메달은 1968년 자카르타 대회 최정숙의 금메달 이후 한국 여자 단식 선수 중 53년 만의 최고 성적이다.

국제탁구연맹(ITTF)이 아시아 대표 단체를 아시아탁구연맹(ATTF)이 아닌 아시아탁구연합(ATTU)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신유빈은 한국 여자 단식 최초의 결승 진출자로 이름을 남겼다.

세계랭킹 80위 신유빈은 랭킹 21위 하야타를 맞아 먼저 한 세트를 따냈다. 하지만 이후 하야타의 공세에 내리 세 세트를 내줬다.

한편 혼합복식 장우진(미래에셋증권)-전지희(포스코에너지) 조와 남자복식 장우진-임종훈(KGC인삼공사) 조는 결승에서 모두 일본 조에 패했다.

장우진-전지희 조는 도가미 순스케-하야타 조에 세트스코어 1-3(11-6 9-11 7-11 9-11)으로 졌고, 장우진-임종훈 조는 우다 유키야-도가미 조에 세트스코어 1-3(13-11 11-8 8-11 11-9)으로 물러났다.

두 대회 연속 전 종목 석권을 노리던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으로 전면 불참을 선언했고, 일본과 싱가포르 또한 1진 선수들을 모두 제외했지만 한국은 2진급으로 나선 일본에 번번이 막혀 아직 금메달을 수확하지 못한 상태다.

뉴시스

황선우, 전국체전 자유형 50m 등 5개 종목 출전

10일 자유형 50m·계영 800m, 12일 개인혼영 200m·계영 400m, 14일 혼계영 400m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18·서울체고)가 올해 전국체육대회에서 5개 종목에 출전한다.

102회째를 맞는 올해 전국체전은 8일부터 14일까지 경상북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고등부 대회만 열린다.

수영 종목은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펼쳐진다.

황선우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5일 “황선우가 두 종목만 나설 수 있는 개인종목은 자유형 50m와 개인혼영 200m를 골랐다. 이외에 단체전인 계영 400m·800m, 혼계영 400m에 출전한다”고 밝혔다.

10일 자유형 50m와 계영 800m에 나서고, 12일 개인혼영 200m와 계영 400m에 출전한다. 14일에는 혼계영 400m를 뛴다.

황선우의 주종목은 자유형 100m와 200m다.

그는 올해 8월 끝난 2020 도쿄올림픽에서 자유형 100m 아시아신기록이자 세계주니어신기록인 47초56을 기록했다. 1956년 멜버른 대회 다니 아쓰시(일본) 이후 65년 만에 올림픽 남자 자유형 100m 결승 무대를 밟은 아시아 선수로 이름을 올렸고, 최종 5위를 차지했다.

자유형 200m에서는 1분44초62의 한국신기록을 써냈다.

황선우는 이번 대회에서 컨디션 점검을 위해 주종목이 아닌 종목에 출전하지만, 한국기록 경신 여부에는 관심이 쏠린다.

자유형 50m 한국기록은 양재훈(강원도청)이 2020년 11월 작성한 22초16이고, 개인혼영 200m 한국기록은 박태환이 2014년 세운 2분00초31이다.

내년 2월 고교를 졸업하는 황선우는 대학 진학 대신 실업팀 입단으로 진로를 정했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년 파리올림픽 준비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다. 전국체전이 끝난 뒤 황선우의 행선지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뉴시스

美 매체의 냉혹한 평가, 양현종의 2021시즌 ‘F등급’

디애슬레틱, 텍사스 소속 투수들 등급 부여

메이저리그(MLB) 도전에 나섰던 국내 대표 좌완 투수 양현종이 현지 언론으로부터 냉혹한 평가를 받았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디애슬레틱은 5일(한국시간) 2021시즌 텍사스 레인저스 소속 투수들을 평가하면서 양현종에게 F등급을 부여했다.

이 매체는 “양현종은 기대치가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F등급이 아닌 D등급에 속할 수도 있었다’고 표현한 뒤 “빛났던 순간도 있었다”면서 5월6일 미네소타 트윈스전 3⅓이닝 동안 8개의 삼진을 이끌어낸 것을 꼽았다.

하지만 전체적인 평가는 좋지 않았다. 디어슬레틱은 “(미네소타전 이후) 평균자책점은 2.25로 희망적이었다. 계속 메이저리그에 머무를 것처럼 보였는데 6월16일 트리플A로 강등됐고 다음 날 지명할당 조치됐다”고 적었다.

국내 프로야구의 수준 높은 대우를 포기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과감히 미국행을 택한 양현종은 올해 빅리그 8경기에 나섰지만 승리없이 3패 평균자책점 5.59에 그쳤다.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오가면서 고대했던 첫 승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역부족이었다. 디어슬레틱은 양현종을 포함한 F등급 선수들에게 ‘당신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붙였다.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데인 더닝은 A등급 선수로 분류됐다. 기록은 5승10패 평균자책점 4.51로 좋지 않았지만 꾸준히 마운드를 지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시즌을 마친 양현종은 이날 귀국한다. 양현종은 국내 복귀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KBO리그로 돌아온다면 원소속팀인 KIA 타이거즈행이 유력하다.

양현종은 2020시즌 KIA에서 연봉 23억원을 수령했다.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인 양현종을 영입하는 팀은 그의 기존 연봉 100%인 23억원에 보호선수 외 1명 혹은 연봉 200%인 46억원을 KIA에 지불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국내 구단들이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하나금융 챔피언십 우승한 송가은 세계랭킹 수직 상승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거머쥔 송가은(21)이 여자골프 세계랭킹 89위로 뛰어 올랐다.

송가은은 4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지난주 161위에서 89위로 올랐다.

송가은은 지난 3일 경기 포천시에서 막을 내린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연장 접전 끝에 교포 선수 이민지(호주)를 물리쳤다.

뉴시스

전례 없는 투타겸업 오타니 FA시 몸값 천정부지

MLB닷컴, 최소 5년 2억5000만 달러 예상…에인절스, 오타니 FA 되기 전 장기계약 가능성도

경악할 만한 시즌을 보낸 오타니 쇼헤이(27·LA 에인절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올해 오타니는 타자로는 타율 0.257(537타수 138안타)에 46홈런 100타점 103득점 26도루 출루율 0.372 OPS 0.965를 기록했으며, 투수로는 23경기에 선발로 나와 100마일이 넘는 강속구를 앞세워 9승 2패 평균자책점 3.18을 기록했다. 130⅓이닝을 던졌다.

정규리그 MVP 역시 오타니가 무난하게 거머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부 미국 외신은 오타니가 2023년을 끝으로 FA가 될 경우, 사상 최고의 몸값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타니는 2020시즌을 마치고 2년 총액 850만 달러의 계약서에 사인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오타니의 연봉이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LA타임스는 “투타겸업 선수의 가치를 평가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협상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속팀 LA 에인절스는 오타니가 FA 자격을 갖추기 전에 장기계약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타겸업 선수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부상 우려가 훨씬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황희찬 “손흥민·황의조 형과 시너지 기대…시리아·이란전 좋은 분위기로”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7일 시리아·12일 이란과 3·4차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팬들을 열광하게 한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울버햄튼)이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3·4차전에서 손흥민(토트넘), 황의조(보르도)와 좋은 호흡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황희찬은 5일 진행된 대한축구협회 비대면 인터뷰에서 “우리 셋(손흥민·황희찬·황의조)이 같이 뛰는 것을 좋아하고 얘기도 많이 나눈다. 꼭 셋이 아닌 누가 나가도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른 선수들도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팀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7일 시리아(안산), 12일 이란(이란 테헤란)과 2연전을 앞두고 4일 경기도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모였다.

최근 리그에서 물오른 골 결정력을 자랑한 황희찬도 합류했다. 황희찬은 지난 2일 뉴캐슬과의 2021~2022시즌 EPL 7라운드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울버햄튼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독일 분데스리가를 떠난 뒤, 3번째 득점으로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이다.

황희찬은 “분데스리가와 라이프치히도 크고 좋은 리그와 팀이지만 EPL은 어려서부터 보면서 꿈을 키운 무대”라며 “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훈련장부터 스태프까지 최고 수준이다. 축구만 집중하면 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좋은 경기력이 나온 것에 대해선 아무래도 연속적으로 선발로 나가고, 출전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다.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감독님과 선수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다.

황희찬의 2골을 모두 도운 멕시코 국가대표 출신 라울 히메네스에 대해선 “같은 훈련해 보니까 좋은 선수라는 걸 알 수 있었다”며 “훈련장에서 아직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감독님이 원하는 걸 서로 잘 이해하고 있다. 그걸 잘 맞추려고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답했다.

황희찬은 뉴캐슬전 활약에 힘입어 손흥민과 함께 EPL 라운드 베스트11에 선정됐다.

그는 “큰 무대에서 베스트11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뽑혀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도와준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크다”면서도 “이게 끝이 아니라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동기부여가 되는 소식이었다”고 했다.

손흥민과 펼친 대결에서 대해선 “흥민이 형이랑 뛰게 돼 묘하면서도 좋았다. 최고의 무대에서 반갑고, 좋았다. 이번에는 (한 팀에서 뛰면서) 또 특별하고 새로운 느낌일 것 같다”고 했다.

뉴캐슬전을 끝내고 바로 귀국한 황희찬은 “장시간 비행 이후에 뛰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대표팀에 오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재미있게 생각한다. 즐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들 수 있지만 딱히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하려고 한다. 선수들 모두 서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잘 준비하고 있다”고 보탰다.

EPL은 ‘위드 코로나’에 돌입했다. 수만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채운다. 선수들은 열렬한 응원과 함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7일 시리아전은 무관중으로 열린다.

이에 대해선 “홈 팬들을 앞에서 뛰고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는 팬들과 하나가 돼서 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TV에서 더 많이 응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황희찬은 A매치 39경기에 출전해 총 6골을 기록 중이다. 이중 절반인 3골을 중동국가를 상대로 터뜨렸다. 중동국가들과 한 조에 편성된 이번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그의 활약을 기대하는 배경 중 하나다.

황희찬은 “이번에도 골을 넣어서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골이 아니더라도 승리에 크게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중동 특유의 ‘침대축구’에 대해선 “많이 답답한 게 크지만 우리가 뛰면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더 답답하다”면서도 “그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다들 경험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것이다. 마지막까지 그런 조급함 없이 하기 위해서 경기를 (초반부터) 잘 풀어야 한다. 그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리아에 대해선 “신체조건이 큰 편은 아니지만 빠르고, 기술이 좋았다”고 기억했다.

마지막으로 이란 원정에 대해선 “지금은 시리아를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굳이 이란전을 얘기하자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우리가 비기자, 지자는 말은 아니다. 시리아를 잘 상대하고, 분위기를 잘 이어서 이란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